

제60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록

1. 일 시 : 2017. 01. 18.(수) 15:00 ~ 19: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

3. 참 석 : 정영기 의 장, 노재성 부의장, 김상배 평의원, 문우진 평의원, 이동렬 평의원,
임문채 평의원, 류동관 평의원, 오귀석 평의원, 최종원 평의원, 김준형 평의원,
(불참 : 구형건 평의원, 이준석 평의원, 이삼구 평의원)

4. 의안

○ 평의회 의장 선출

○ 심의사항

- 학칙 개정 (안)

○ 사전 논의사항

- 국제학부 한국학전공 신설(안)

○ 자문사항

- 2017학년도 본예산(안) [교비회계 및 병원회계]

5. 주요 회의결과

가. 평의회 의장 선출

○ 전임 평의회 의장의 사임에 따라 부의장 주재로 신임 의장 선출을 진행함

○ 부의장이 신임 의장 추천을 요청하고, 신임 평의원으로 선출된 정영기 평의원이 추천
되고 평의원 전원 찬성으로 정영기 평의원을 신임 평의회 의장으로 선출함

○ 신임 평의회 의장 주재로 제60차 회의를 개최함

<간서명 란>

의 장



나. 심의사항 - 학칙 개정(안)

-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은 제51조(학사과정의 조기졸업) 제2항 제1호 「학석사연계과정 누계평점기준 완화(안)」을 제외하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함.

「학석사연계과정 누계평점기준 완화(안)」은 아래와 같은 의견이 개진되어 추후 자료를 보완하여 추후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함

- 학석사연계과정의 조기졸업 누계평점기준 완화(3.3 -> 3.0)는 본교생에 대한 대학원 진학 유도를 위한 취지로 학과장회의를 통해 요청된 사항임을 설명함
-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석사연계과정의 목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조기졸업의 기회를 주어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기준 완화가 오히려 성적 우수학생의 진학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본교생에 대한 대학원 진학 유도는 대학원의 발전계획 및 비전 제시, 장학금 확충 등 본질적인 노력을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개진
- 기준 완화를 통해 학사과정의 조기졸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 기준 완화는 본교생에 대한 본교 대학원 진학의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이고, 실제 이전에 기준 완화(3.75 -> 3.3) 시 지원인원이 증가한 결과가 있으며, 대학원 입학 후 첫학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조기졸업이 취소되는 규정 및 실제 입학전형 시 면접을 통해 학업능력 등 검증절차가 있음을 설명함
- 위와 같은 의견 개진에 따라 개정(안) 발의 부서인 대학원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 보완 후 추후 서면결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함

[주요 개정내용]

- 제4조(기구) 별표1 창업지원단 신설(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 제8조(대학원)/제53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경영대학원 전공 변경(e-비즈니스->IT비즈니스, 병원경영->헬스케어) 및 전공 신설(창업벤처, 연구기술경영)
- 제10조의3(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내용 신설
- 제43조(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및 트랙) 융합시스템공학전공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제한
- 제44조의2(전공진입) 융합시스템공학과 전공진입제 적용대상 제외
- 제50조(학사과정의 졸업요건) 융합시스템공학과 졸업이수학점 120학점 구성

자세한 사항은 2016년 동계 1차 임시교무회의 회의록 참조

<간서명 란>

의 장



다. 사전 논의사항 - 한국학전공 신설(안) 사전 논의

- 국제학부 한국학전공 신설(안)에 대하여 기획팀장이 설명함
- 한국학전공 신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전공 신설에 동의하여 추후 교무회의 심의 후 서면결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기로 함

라. 기타사항

- 의대 교수에 대한 출차기록을 통한 근태관리 문제에 대해서 의장의 설명에 이어 의료원 관계자의 진술을 듣고자 하였으나 관계자들의 불출석으로 진술을 듣지 못 함.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교수회 대의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마. 자문사항

○ 2017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1) 보고사항

- 기획처장이 2017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안)을 설명함

2) 자문사항

- 2017년도 교비회계 예산이 전년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수준으로 증가하지 못 하고 있음. 전체 수입을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편성했으나(2,481억->2,589억) 의대 증가분이 14.7%를 차지하여(657억->754억) 실제 본교 수입 증가분은 0.6%에 불과함(1,709억->1,716억으로 7억 원 증가). 물가상승률만 고려하더라도 본교의 예산은 전년대비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봄. 예비비가 없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어 학교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실행은 물론 응급사태에 대한 대처도 어려운 예산임. 이러한 예산 편성이 지속된다면 학교 발전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음.
- 등록금 수입분 역시 1.4% 상승에 불과함.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간서명 란>

의 장



따른 입학정원 감축 및 학령인구의 감소 상황에서 지속적인 등록금 수입의 감소가 우려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재직자 전형의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를 가능한 한 확대, 발전시킬 것을 주문함.

- 전임교원 확보가 학교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전임교원 확보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겠으나 이와 함께 교육환경 및 연구부문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함을 주문함.
- 기부금 수입 역시 총수입 대비 2.1%로 재정 목표인 3.3%에는 못 미침. 경제, 사회적인 여건상 기부금 수입 증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좀 더 적극적인 학교의 대처를 주문함. 또한 기부금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학교 자체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주문함. 이를 위한 종자자금 확보가 필요함.
- 적정한 수준의 수입 예산 확보를 위해 대내외적 장애가 많이 있겠으나, 학교 자체의 노력을 촉구함. 특히 법인 전입금 증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100% 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함.

○ 2017학년도 부속병원회계 본예산(안)

1) 보고사항

- 기획조정실장이 2017학년도 부속병원회계 본예산(안)을 설명함

2) 자문사항

- 2016년도 2차 추경 자문 시 요청했던 중요 지표들에 대한 재정운영 목표 및 연차별 달성도를 정리하고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주요경영실적을 보고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됨.
- 의료수입을 전년대비 8% 증가된 5,044억 원 예상함. 이는 2017년도 병원급 이상 수가 인상분 1.8%를 제외하고도 약 6% 이상의 의료수입 달성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함. 교수 1인당 진료량을 늘이려는 단순한 방안은 지양되어야 하며, 향후 진료 수입

<간서명 란>

의 장



증대를 위한 방안을 의료원 교수들에게 제시할 것을 권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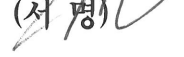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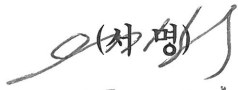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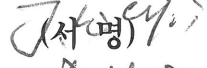

- 의료이익률을 5%로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은 전년(2.7%)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운 이익률의 증가로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추후 그 방안이 의료원 구성원들에게 제시되기를 바람.
- 중증 재활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의료원 투자계획에 따르면 2028년도까지 의료원에서 총 391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2025년까지는 매년 38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게 되어 있음. 법인 제326차 회의록에 의하면 건축규모 및 건축면적 증가를 이유로 134억 원의 추가비용 승인요청 및 승인되었음. 그러나 추가 비용부담에 대하여 2017년도 병원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원 구성원들에게 신축변경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함.
- 재료비에 대하여
 - ① 2016년도 약품비 및 방사선 재료비를 제외한 진료재료비가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 ② 이는 환자 대비 증가분 7%, 권역외상센터 신축에 따른 수술 기구류 증가와 초기 준비로 인한 증가분 4.1%, 진료재료비의 비중이 큰 건강검진과 수술의 증가로 인한 증가분 6.2% 임.
 - ③ 재료비는 인건비 다음으로 큰 지출항목으로 2017년도는 전년 대비 재료비가 4.9% 증가(78억 원 이상). 이는 재료비 1% 증가가 16억 원 이상의 큰 액수이므로 재료비 절감에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또한 의료수익 대비 재료비 비율이 주요 대학병원 평균수준인 33.4%를 달성토록 할 것을 주문함.
 - ④ 지출에서 차지하는 진료재료비 비중이 두 번째로 큰 지출항목이므로 전체 진료재료비 뿐만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된 재료비 항목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⑤ (주)대아를 통한 진료재료비 구매 액수가 2016년도에 490억에 달하는데 2015년도 (주)대아의 이익이 4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익률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 ⑥ (주)대아를 통한 재료의 구매방식은 구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임을 고려할 때 실제 의료원의 비용 절감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자금 파악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간서명 란>

의 장



2017. 01. 18.(수)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의 장	정영기	(서명) 
부위원장	노재성	(서명) 
평의원	김상배	(서명) 
평의원	구형건	(서명)
평의원	문우진	(서명) 
평의원	이동렬	(서명) 
평의원	임문채	(서명) 
평의원	류동관	(서명) 
평의원	이준석	(서명)
평의원	오귀석	(서명) 
평의원	최중원	(서명) 
평의원	김준형	(서명) 
평의원	이삼구	(서명)
간 사	김종현	(서명) 